

국립국어원 2013-01-02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443-01

기자를 위한  
신문언어길잡이

기  
자  
를  
위  
한  
신  
문  
언  
어  
길  
잡  
이

기자를 위한  
신문언어길잡이

국립국어원



기자를 위한

# 신문언어길잡이

## 차례

머리말	5
-----	---

제1단계 이것만은 꼭	9
-------------	---

1.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11
2. 낱말 바르게 사용하기	22
3. 문법에 맞게 쓰기	43

제2단계 이왕이면 이렇게	51
---------------	----

1. 시대에 맞는 말 쓰기	53
2. 딱 들어맞는 말 쓰기	56
3. 외국어 투 안 쓰기	58
4. 불필요한 피동 표현 안 쓰기	63
5. 쉬운 말 쓰기	65
6. 과장된 표현 안 쓰기	75

제3단계 품격을 높이려면	77
---------------	----

1. 품위 없는 말 피하기	79
2. 객관성, 공정성 지키기	83

찾아보기	89
------	----



## 머리말

### 더 나은 신문 문장을 위해

신문을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한다. 신문이 비록 회사 형태의 기업이 발행하는 상품이지만 그 기능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 제15조 제2항은 신문에게 특별한 구실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국어기본법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은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신문인이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신문 제작의 준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문 윤리 강령’과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참고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할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낼 수 있다. ‘신문 윤리 강령’과 ‘신문 윤리 실천 요강’ 가운데에서 국어 사용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신문 윤리 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사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사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기사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사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신문 문장은 크게 보도와 평론으로 이루어지므로 보도 문장과 평론 문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먼저 위 신문 윤리 강령과 신문 윤리 실천 요강에서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도: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

평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

여기에 문장을 구성할 때에 국어와 관련한 규범을 지키도록 하면 국어 기본법이 대중매체에 기대한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길잡이는 몇 가지 요건을 신문 문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설정하고 초심자가 단계별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제1단계] 이것만은 꼭

이 단계에서는 어문 규범과 문법, 낱말 사용법을 어긴 대표적인 경우를 제시하여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한다.

### [제2단계] 이왕이면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신문 문장을 고급스럽게 작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말이나 표현을 적절한 것으로 바꿔 사용하는 연습을 한다.

### [제3단계] 품격을 높이려면

이 단계에서는 신문 언어의 품격을 높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윤리 강령과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이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맞지 않은 문장을 골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장을 쓰지 않도록 연습한다.

### 일러두기

이 책에서 사용한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 앞의 것이 틀린 것임을 나타낸다.

○ : 앞의 것이 맞는 것임을 나타낸다.

→ : 대체할 낱말이나 더 적절한 낱말 앞에 붙인다.

/ : 둘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 덧붙이는 설명 앞에 붙인다.

※ 이 책에서 예문으로 사용한 신문 기사는 실제 신문에 실린 것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분을 빼기도 하고 표기나 띄어쓰기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잡아 제시하였다.

### 제1단계 이것만은 꼭

1.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2. 낱말 바르게 사용하기
3. 문법에 맞게 쓰기

# 01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1) 바람(×) → 바람(○), 같애(×) → 같아(○)

‘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이고 ‘같다’의 종결형은 ‘같아’이다. ‘바람’과 ‘같애’는 비표준어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국내 수제 원목가구 업계 선도 브랜드인 카레클린트가 이러한 <b>바람</b> 을 실현시켜주는 첫 번째 가구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바람
‘천변의 입맞춤’ 김소은, 이순재에 애절한 <b>바람</b> , ‘차화연 용서한다면 이혼하겠다’	바람
이종범 코치 역시 취임 인터뷰에서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처럼 그라운드 위에서 다독여줄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b>바람</b> 을 드러낸 바 있다.	바람
“그냥 승인하는 게 나을 것 <b>같애요</b> ”라고 밝히는 등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아요
스님 머리 나랑 <b>같애</b> .	같아
“오바마 X <b>같애</b> .” 美 방송인 출연정지... PD 실수 때문에	같아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길 이름을 바람길이라 붙였다고 한다.

## (2) 뿌리채(×) → 뿌리째(○), 통채(×) → 통째(○)

명사 뒤에 붙어서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째’이다. ‘채’는 ‘있는 상태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유로존 구제금융 판도 <b>뿌리채</b> 흔들	뿌리째
얼음물에 식힌 참돔을 <b>깍질채</b> 썰어내 쫄깃한 식감을 배로 살리는 방식으로 손질한 통영산 활참돔회를 25,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깍질째
팝스타 비온세가 첫 딸을 낳으면서 15억여 원으로 병원을 <b>통채로</b> 빌렸다.	통째로
이랜드그룹이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b>통채로</b> 빠진 영향이 컸는데...	통째로
검찰의 수사가 초기에 비해 추진력을 잃어 신중을 기하지 <b>않은채</b>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않은 채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아버지는 빗보증을 잘못 선 바람에 전 재산을 송두리채 날려 버렸다.

## (3) 치루다(×) → 치르다(○), 담구다(×) → 담그다(○), 잠구다(×) → 잠그다(○)

‘치루다’, ‘담구다’, ‘잠구다’는 ‘치르다’, ‘담그다’, ‘잠그다’의 비표준어이다. 따라서 ‘치뤄’, ‘담귀’, ‘잠귀’도 비표준어이다. ‘치러’, ‘담가’, ‘잠가’가 표준어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신인그룹 ‘WE(위)’, ‘엠카’서 성공적 데뷔 무대 <b>치뤄</b>	치러
미디어들은 ...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저작권 지키기 전쟁을 <b>치뤄온</b> 바 있다.	치러온
하지만 이에 앞서 지해는 온라인상에 떠돌았던 왕따설로 곤욕을 <b>치룬</b> 바 있다.	치른
궁궐 장 <b>담귀요</b> .	담가요
고칼륨 식품은 찬물에 2시간 이상 <b>담귀</b> 놓거나 더운 물에 데쳐 먹으면 된다.	담가
무조건 물에만 몸을 <b>담구면</b> 실패!	담그면
옆 강의실 8명, 총소리 나자 문 <b>잠귀</b> 피해 면해	잠가
미국은 대화 탐색하는데 한국은 문 걸어 <b>잠귀</b>	잠가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만일 매번 일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궜다면 이번엔 소금을 물에 풀어 보자.

## (4) 들리다(×) → 들르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의 뜻으로 쓰는 낱말은 ‘들르다’이고 이 말은 ‘들르니, 들러, 들렀다’처럼 활용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아무렇지않게 동네 슈퍼마켓에 <b>들러</b> 비닐봉투를 구입하려다녔으며	들러
부동산 채테크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바로 김임순 자문위원의 블로그에 <b>들러</b>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들러
지금의 조선포탈 부근에 있었던 다방 ‘낙랑파라(樂浪 parlour)’에 <b>들러</b> 가배차(커피)를 마시고 식민지 근대 경성의 거리를 활보하던 만보객(萬步客)	들러
이 자리에서 성금을 전달받은 한현택 동구청장은 “지역을 넘나드는 정 원장의 선행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곳에 <b>들러</b> 800만 원을 기부했다.	들러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커팅식에서는 중국, 한국 귀빈 13분이 무대에 올랐고 청두시 문화국 주수희 국장님의 선포 아래 일제히 커팅이 이루어졌다. 커팅식을 마친 귀빈들은 청두관광서울체험센터에 <b>들러</b> 제막을 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됐다.	들러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당시 한국인이 북경에 가면 으레 들렸던 곳이 동인당이라는 한약방이었다.

## (5) 갖어(×) → 가져(○), 갖으면(×) → 가지면(○), 갖은(×) → 가진(○)

‘가지다’는 ‘ㄴ’,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갖다’로 줄어들 수 있어서 ‘갖는, 갖고, 갖되, 갖지’처럼 쓸 수 있다. 그러나 모음이나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줄일 수 없다. ‘가지면, 가지려고, 가져, 가진’을 ‘갖으면, 갖으려고, 갖어, 갖은’처럼 쓰면 안 된다. ‘갖세’, ‘갖습니다’는 ‘가지세’, ‘가집니다’로도 쓸 수 있지만 ‘갖으시고’는 ‘가지시고’로 써야 한다. 다만, 관형사로 사용하는 ‘갖은’은 ‘골고루 갖춘’의 뜻으로 쓰이는 별개의 단어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한국타이어 전시관에는 추신수 미국 프로야구 클리브랜드 선수 가 방문해 사인회를 <b>갖어</b>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져
‘유리왕’ 정진영 “서울대 국문과 출신에 관심 <b>갖으면</b> 서운해요”	가지면
불확실한 요인들이 제거되는 시점에서 증권주에 관심을 <b>갖으면</b>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지면
타블로-강혜정 부부가 27일 오후 서울 성수동 대림 창고에서 열린 ‘코오롱스포츠 F/W 2012 컬렉션’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b>갖은</b> 후 퇴장하고 있다.	가진
그리고 <b>가진 양념</b> 을 넣어 만든 다대기가 미각을 자극하며	갖은 양념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①갖은 고생을 다 했다.
- 잔치에는 ②가진 양념을 다 써서 음식을 만든다.
- 좋은 것은 높은 사람들이다 ③갖었다.

## (6) 덜어(×) → 디더(○), 덜은(×) → 디딘(○)

‘디디다’는 ‘ㄴ’,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덜다’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디디는, 디디고, 디디도록, 디디지’를 ‘덜는, 덜고, 덜도록, 덜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음이나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줄여서 사용할 수 없다. ‘디디면, 디디려, 디더, 디딘’을 ‘덜으면, 덜으려, 덜어, 덜은’처럼 쓰면 안 된다. ‘덜세’, ‘덜습니다’는 ‘디디세’, ‘디딤니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덜으신다’는 ‘디디신다’로 써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파비안도 여러 차례 오른발을 땅에 강하게 <b>덜어</b> 보며 상태를 체크했다.	디더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간결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스토리.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거대한 맵과 적들, 웅장한 음악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게이머라면 다시 한번 금단의 땅으로 발을 <b>덜어</b> 보는 것이 어떨까요?	디더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2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상석(床石: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놓기 위해 돌로 만든 상)에 한 발을 <b>덜은</b> 데 대해 사과했다.	디딘
브래드 피트는 11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김포공항으로 입국, 한국 땅에 첫 발을 <b>내덜었다</b> .	내디뎠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오른발을 바닥에 덜으시고 왼발은 앞으로 올리세요.

## (7) 절대절명(×) → 절체절명(○)

‘절대절명’은 한자 사자성어인 ‘절체절명(絶體絶命)’을 잘못 적은 것이다. ‘체’를 ‘대’로 발음하는 것은 일본 한자 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TJB 이갑우 사장은 올 한해 업무를 <b>절대절명</b> 의 숙제’로 규명했다.	절체절명
7회 말 무사 3루의 위기에서는 4, 5, 6번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팀을 <b>절대절명</b> 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절체절명
교통사고를 당한 <b>절대절명</b> 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감회에 젖었다.	절체절명
하지만 <b>절대절명</b> 의 순간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지만 실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이 극적인 재미를 위해 컴퓨터로 합성해 현실감 있는 사진을 만들었다	절체절명
이들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제주 농업은 <b>절대절명</b> 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며...	절체절명
그는 이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b>절대절명</b> 의 과제인 만큼 이번 조치는 한시적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절체절명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할머니는 거꾸로 매달려 시속 200km의 무서운 속도로 지상으로 곤두박질한다.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 (8) 훌훌단신(×) → 헐헐단신(○)

‘훌훌단신’은 한자 사자성어인 ‘헐헐단신(子子單身)’을 잘못 적은 것이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려운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하나 남은 혈육인 남동생이 살고 있었으나 올해 초 숨지면서 그야말로 <b>훌훌단신</b> 이다.	헐헐단신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가 <b>훌훌단신</b> 익명의 대도시에서 흥측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헐헐단신
‘88만 원 세대의 비극, 궁핍과 외로움’ ... <b>훌훌단신</b> 열아홉 꽃치녀 한강 투신	헐헐단신
황재명 씨는 4세 때 부모를 잃고 <b>훌훌단신</b>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헐헐단신
‘미국에나 가라’ 등의 악플은 <b>훌훌단신</b> 미국에서 꿈을 좇아 한국으로 온 김나운에게...	헐헐단신
WP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 중국을 거쳐 탈북에 성공한 박씨는 같은 해 6월 동반가족 없이 <b>훌훌단신</b> 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헐헐단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가족까지 그를 버리고 돌보지 않자 그는 훌훌단신 한뼉잠을 자면서 무서운 집념으로 노력했다.

## (9) 환골탈퇴(×) → 환골탈태(○)

‘환골탈퇴’는 한자 사자성어인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잘못 적은 것이다.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뀔’을 뜻하는 말이다. 어려운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어쨌든 한나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b>환골탈퇴</b> 해야 한다.	환골탈태
‘ <b>환골탈퇴</b> ’ 신이 & ‘언제 끝나?’ 서태지-이지아	환골탈태
속만 쓰린 예전 LG의 추격 야구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LG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과 1, 2군이 하나로 응집된 집중력의 야구로 <b>환골탈퇴</b> 했다.	환골탈태
보건소 ‘ <b>환골탈퇴</b> ’ ... 반세기만에 이름·기능 바뀐다	환골탈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 온 삼창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 ‘ <b>환골탈퇴</b> ’할 전망이다.	환골탈태
“부평의 교육과 복지에 새 숨결을 불어 넣어 살고 싶은 도시로 <b>환골탈퇴</b> 시켜 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골탈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새 사장은 입지 환경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던 매장을 환골탈퇴시켰다.



- (10) 콘텐츠 · 컨텐츠(×) → 콘텐츠(○), 컨셉트(×) → 콘셉트(○),  
지놈(×) → 게놈(○), 매니어(×) → 마니아(○),  
슈퍼(×) → 슈퍼(○), 뷔띠(×) → 프티(○)

외래어를 쓸 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써야 한다. 특히 영어에서는 ‘content’로 쓰더라도 한국어에서는 ‘콘텐츠’로 굳어졌으므로 이를 따른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5%가 인터넷 <b>콘텐츠</b> 이용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콘텐츠</b> * 영어가 아닌 한국어 표기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동아리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 <b>컨텐츠</b> 를 공유했다.	<b>콘텐츠</b>
5개 지역에서 열리는 장터를 하나씩 맡아 여행을 떠나는 <b>컨셉트</b> 로 진행된다.	<b>콘셉트</b>
토마토의 <b>지놈</b> (genome) 지도가 완전 해독됐기 때문이다.	<b>게놈</b>
그는 “매운 맛을 좋아해 빨간 라면을 선호한다”라는 한국 라면 <b>매니어</b> 다.	<b>마니아</b>
北, <b>슈퍼</b> 에 네스카페 커피 등 외국 제품 즐비 ... 개혁 ‘신호탄’?	<b>슈퍼</b>
최근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b>뷔띠</b> 성형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 <b>뷔띠</b> 성형’은 ‘작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뷔띠(petit)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시술 부위가 국부적인 성형을 말한다.	<b>프티</b>

- (11) 이밖에도(×) → 이 밖에도(○), 그밖에도(×) → 그 밖에도(○),  
수 밖에(×) → 수밖에도(○), 너 밖에(×) → 너밖에도(○)

‘밖에’가 조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 ‘밖’에 조사 ‘에’가 붙은 형태로도 쓰인다. 조사로 쓰일 때에는 ‘밖에’를 앞 말에 붙여 쓰지만 명사로 쓰일 때에는 띄어 써야 한다. ‘밖에’가 조사로 쓰이면 그 뒤에 부정하는 부사나 서술어가 온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b>이밖에도</b> 웨딩케이크 100만 원, 기념초 30만 원 등 양가의 혼주가 호텔에 낸 돈은 1억 원을 넘었다.	<b>이 밖에도</b>
<b>이밖에도</b>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외면·무시·방치한 20여 건의 최근 사례를 모아	<b>이 밖에도</b>
외국의 경우, 인종 차별에 저항한 지내던 지단이 있고 국제 축구계의 권력자들을 조롱하며 반세계화 운동에 가담한 마라도나가 있으며 <b>그밖에도</b> 수많은 스타들이 저마다 처한 사회적 상황에 저항하거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 왔다.	<b>그 밖에도</b>
유치전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b>수 밖에</b> 없다.	<b>수밖에도</b>
과거 불법 복제 실패를 손 놓고 볼 <b>수 밖에</b> 없었던 미디어들	<b>수밖에도</b>
‘내 눈엔 <b>너 밖에</b> 안 보여’라고 고백한다.	<b>너밖에도</b>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협정의 문제점은 여기에 열거한 ①것밖에도 수없이 많다.
- 협정의 문제점이 여기에 열거한 ②것 밖에 없습니까?

## O2 낱말 바르게 사용하기

### (1) 한글 → (한)국어/우리말

‘한글’은 ‘(한)국어’를 적는 글자 이름이다. ‘한글’과 ‘(한)국어’가 같은 말이 아니므로 ‘(한)국어’를 ‘한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글자를 가리킬 때에는 ‘한글’, 말을 가리킬 때에는 ‘(한)국어’ 또는 ‘우리말’이라고 해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하는 <b>한글</b>	한국어
포털 ‘ <b>한글</b> 파괴’도 넘다	(한)국어/우리말
정체불명 영어 가사, <b>한글</b> 로 바꿔 불러보니	(한)국어/우리말
<b>한글</b> 의 오염은 곧 우리 정신의 오염일 것이다	(한)국어/우리말
20세기 전반 한국학의 초석을 놓은 위당(爲堂) 정인보(1893~?) 선생의 대표작 『조선사연구』(상권, 우리역사문화재단) <b>한글</b> 완역본이 처음으로 출간됐다. 1935년 1월 1일부터 36년 8월 29일까지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된 지 75년 만의 일이다.	(한)국어/국문
하지만 오늘날 <b>한글</b> 의 오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외래어가 남용되는 것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되는 비속어와 정체불명의 유행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어/우리말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 그 속에 있는 비속어와 줄임말 사용은 대학생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파괴된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등극(登極) → 오름/올라

‘등극’은 전제주의 시대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리키던 말로, 이것을 일등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였는데, 요즘은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고의 자리나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아니면 이 말을 사용할 수 없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대한민국 여성, 세계 미모 2위 <b>등극</b>	올라
곽현화가 불륜녀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팜프파탈로 <b>등극했다</b> .	자리매김했다
리제강이 장성택의 2인자 <b>등극</b> 을 5일 앞두고 갑자기 사망한 것은 “매우 이상하다”라는 관측이다.	오름/자리매김
수빈, 등곳길 버스 탄 모습 포착 ‘교복 여신’ <b>등극</b>	자리매김/반열에 올라
박보영 의자녀 <b>등극</b> “해맑은 표정으로 런닝맨 멤버 올킬”	자리매김
김정은 북(北) 2인자 <b>등극</b> ‘천안함 주범’ 김영철 뜨고 ‘공작 총책’ 오극렬은 지고	올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4위 <b>등극</b>	올라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세계 부자 순위 488위에 등극한 장신 CEO와 그의 남편 판스이(潘石屹) 소호차이나 회장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 (3) 연출(演出) → 보임/드러냄/일어남/만듦

‘연출’은 특별한 상황이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출’을 쓸 수 없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논란 당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던 둘이다.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특별한 모습은 <b>연출되지</b> 않았다.	보이지/드러내지
KIA는 선두 삼성에 1.5경기 차로 앞섰지만 승률에서 2모(0.002) 뒤져 2위에 머무는 보기 드문 상황을 <b>연출했다</b> .	보였다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최양식 시장과 최암 경주시축구협회장 등으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b>연출했다</b> .	보였다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아찔한 상황을 <b>연출</b> ,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높게 하고 있다.	보여
모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b>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b>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가 험해진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13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화려한 조명이 **연출된** 역새발을 산책하고 있다.

## (4) 파장(波長) → 파문(波紋)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문’이고, ‘파장’은 그것의 길이이다. ‘파장’을 ‘파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파장’은 길거나 짧은 것일 뿐 그것이 일어나거나 일으키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그의 실험은 정신의학계에 큰 <b>파장</b> 을 불러오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파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 조례를 놓고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서 ‘골목 상권’ 보호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b>파장</b>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문
결국 현재 아스넬의 알 수 없는 행보에 박주영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고 이 위기가 대표팀에게도 <b>파장</b> 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다.	파문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민이 단속 업무를 집행하던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외교관계에 적잖은 <b>파장</b>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파문
정치적 <b>파장</b> 이 예상된다.	파문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①**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과의 외교뿐 아니라 경제적 교류 면에까지 그 ②**파장**이 엄청나게 컸다.

## (5) 반증(反證) → 증거(證據)/증명(證明)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증거'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주장이나 증거에 대하여 그것을 반박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내놓는 증거가 '반증'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시즌2가 기획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즌1에서 만들어진 기대감이 크다는 <b>반증</b> 이다.	증거
이 집 군만두는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다 다르다.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빚었다는 <b>반증</b> 이다. 비록 어머니의 손은 아니지만 기계가 빚어낸 만두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빚은 만두를 먹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모양이다.	증거
영상 속 임재범은 '신이 내린 음악성'을 <b>반증</b> 하듯 건반 연주에 맞춰 특정한 가사 없이도 즉흥적으로 자신의 느낌만으로 표현된 가이드송을 만들어 냈으며, 소름 끼치는 라이브를 선보여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증명
일본과 미국 정부의 신속한 반응은 한, 미, 일 3개국이 군사정보 교환과 공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지속해 왔다는 <b>반증</b> 으로 보인다.	증거로
aT는 경기 둔화로 유흥을 위한 소비가 큰 폭 감소했음을 <b>반증</b> 한다고 설명했다.	증명
현재의 상황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b>반증</b> 이기 때문이다.	증거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JY 김준수, 첫 솔로 앨범 'XIA' 일본서 1위 찍쓸이 '인기 **반증**'

## (6) 접수(接受) → 제출(提出)

서류를 받는 행위를 '접수'라고 하고, 서류를 내는 행위를 '제출'이라고 한다. 수험생이 '입시 원서를 접수하러 간다'라고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원서 접수'는 대학 당국이 하는 행위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공직 박람회 오면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고 공무원 채용 원서를 <b>접수</b> 할 수 있다.	제출
실수요자면 누구나 1인 2필지 이상 입찰 가능하며, 입찰가액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필지별로 <b>신청 접수 받아</b> 최고 가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신청 받아
다음 달 6일까지 원서를 <b>접수 받아</b>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받아/ 접수하여
그는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론 ‘사마귀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라고 언급했고, 실제로 고소장을 <b>접수</b> 했다.	제출
선발 인원은 총 102명으로 31일까지 원서를 <b>접수받아</b> 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받아/ 접수하여
874가구 청약에는 1525명이 <b>접수시켜</b> ...	신청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신청서는 오늘까지 2번 창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7) 틀리다 → 다르다/그르다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 개념으로 쓴다. ‘같다’의 반대 개념으로는 ‘다르다’를 쓰고, ‘옳다’의 반대 개념으로는 ‘그르다’를 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소녀시대,美 진출 ‘급’이 <b>틀리다</b> … 시청률 1위 공중파 토크쇼 출연	다르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는 “어떤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옳다 <b>틀리다</b> 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르다
영화 속 머리카락 유무 ‘확실히 <b>틀리다</b> ’	다르다
소지섭 ‘영화 회사원, 영화 아저씨랑 많이 <b>틀리다</b> ’	다르다
내수수요에 광역수요 더한 분양시장, 미래가치가 <b>틀리다</b> .	다르다
이 보령시장 “이념 <b>틀린</b> 선전통일당 탈당”	다른
결혼 전에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후의 인식은 완전히 <b>틀리다</b>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르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이제까지 입던 옷과는 ①**틀린** 옷을 입고 왔다.
- 이제 일이 제대로 되기는 ②**틀린** 것 같다.

## (8) 임신부(妊産婦) → 임신부(妊娠婦)

아이를 밴 여자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아울러 사용할 때에만 ‘임산부’라는 말을 쓴다. 현재 아이를 배어 배가 볼록한 여자는 ‘임신부’이다. 대중 교통수단에서 배려해야 할 사람은 ‘임신부’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차를 많이 마신 <b>임산부</b> 가 출산한 아기들 가운데 이분척추증이 나타난 빈도가 높았다는 것.	임신부
예비 신부는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윤혜진 씨로 원로배우 윤일봉의 딸이다. 현재 임신 5주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진 씨와 같은 임신 초기 <b>임산부</b> 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임신부
10일 경찰이 밝힌 교통사고 자해공갈단에 6세 여아는 물론 출산을 눈앞에 둔 만삭의 <b>임산부</b> 도 끼어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임신부
서해해경청은 10일 오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b>임산부</b> 이모(31·여) 씨를 헬기를 이용해 목포의 한 병원으로 후송했다.	임신부
다(多)태아 <b>임산부</b> 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 원 추가 지원되며…	임신부
“배부른 거 안 보여요?” 뽀뽀한 <b>임산부</b> 못매 … 기차 자리 양보 강요 창피당한 여대생 인터넷 호소	임신부
공개된 사진 속 이파니는 만삭의 <b>임산부</b>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임신부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이 자리는 배가 부른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 (9) 결제(決濟), 결재(決裁)

‘결제’와 ‘결재’는 소리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로 구별해야 한다. ‘결제’는 ‘일을 처리하여 끝냄’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냄’의 뜻이고, ‘결재’는 ‘윗사람이 결정하여 승인함’의 뜻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친필로 이 문서를 <b>결제</b> 했다.	결재
4일 오전 서울 강동세무서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이민영이 <b>결제</b> 서류를 바라보고 있다.	결재
서류 <b>결제</b> · 보험업무 · 청구서 관리 척척 ... 모바일 솔루션 뜬다.	결재
15만 원 이상의 인기 제품을 구매하면 11월12일까지 <b>결제</b>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2012 수능콘서트 티켓을 증정한다.	결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b>결제</b> 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 지출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제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전소를 설치(3개소)하고, 물품 구입 시 카드 <b>결제</b> 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결제
제주신라호텔이 패키지 상품을 현대카드로 <b>결제</b> 하면 상품권과 렌터카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결제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결제권자의 결제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이다.

## (10) 첫 번째 → 첫째

여럿을 차례대로 가리킬 때 맨 처음 것이 ‘첫째’이다. 이에 비해서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맨 처음 회가 ‘첫 번째’이다. 몇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를 나열하려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열해야 한다. 여러 번 한 일을 하나씩 나열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열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유노중은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흔히 나타나며 <b>첫 번째</b> 아이,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간 유노중의 경우에는 여아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첫째
어느 날 <b>첫 번째</b> 아이 돌잔치한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첫째
이번 앨범은 콘서트의 구성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며 <b>첫 번째</b> 트랙의 ‘플레이어’는 그레고리 성가 같은 이색적이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허밍으로 표현했다.	첫째
“① <b>첫 번째</b> 가 수비, ② <b>두 번째</b> 가 리바운드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①첫째 ②둘째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 (11) 곤혹(困惑), 곤욕(困辱)

‘곤혹’은 당황스러움을 느껴 어쩔 줄 모르는 상태이고, ‘곤욕’은 모질게 욕을 당하거나 겪는 것을 뜻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업체 기사들이 <b>곤혹</b> 을 치르고 있다.	곤욕
26일도 주가는 보합을 기록했다. 기아차도 지난 19일 이후 9%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3.45%를 크게 밀돌았다. IT와 자동차 부품주도 덩달아 <b>곤혹</b> 을 겪고 있다.	곤욕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3천만 달러(약 333억 원)의 사나이’ 알렉스 로드리게스(37·뉴욕 양키스)가 경기 도중 관중을 유혹한 사실이 알려져 <b>곤혹</b> 을 치르고 있다.	곤욕
같은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일동후디스가 세습 김출로 <b>곤혹</b> 을 치른 것과 다른 부분이다.	곤욕
강풍이 불어 선수들을 <b>곤욕</b> 스럽게 했다.	곤혹
일설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우노에게 “아저씨 야구공에 해당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며 우노를 <b>곤욕</b> 스럽게 했던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곤혹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오스프리 실전 배치 강행에 이어 터진 민간인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미일 양국 정부 모두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12) 당기다, 땡기다, 땡기다

‘당기다’를 쓸 자리에 ‘땡기다’나 ‘땡기다’를 잘못 쓰거나 반대로 ‘땡기다’나 ‘땡기다’를 쓸 자리에 ‘당기다’를 잘못 쓰기도 한다.

‘당기다’는 ‘입맛이 돋아어지다’의 뜻이고, ‘땡기다’는 ‘불이 옮겨 붙다. 또는 불을 옮겨 붙게 하다’의 뜻이며, ‘땡기다’는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의 뜻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양지머리를 폭 곤 후 식혀 만든 육수는 배 조각에서 우리나라 과즙과 섞여 짭짤하면서 달콤했다.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입맛을 <b>당기</b> 는 게 ‘슴슴’했다.	당기는
이런 대형 연작만 20점. 프랑스 바깥에서 열린 모네 전시 가운데 이만한 규모가 없었다고 하니 더 입맛이 <b>당기</b> 는 전시다.	당기는
만약에 이들이 공천 불투명으로 탈당할 경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맛이 <b>당기</b> 는 묘책이다.	당기는
통합의 도화선에 불이 <b>당겨</b> 졌다.	땡겨졌다
도화선에 불을 <b>당기</b> 다.	땡기다
최우식 ‘옥탑방 왕세자’ 캐스팅 ‘꽃미남 신드롬에 불을 <b>당기</b> 다’	땡기다
필요 이상의 수분과 유분이 함께 빠져 나가기 때문에 <b>당기</b> 는 느낌이 더욱 큰데, 올바른 기초 케어 방법을 모르는 이들은 세안 후 얼굴이 <b>당긴다</b> 고 밀크로션을 사용하거나 유분이 많은 영양크림 사용으로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땡기는/땡긴다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여자핸드볼, 난적 독일 격과 ‘우생순’ 신화 불 **당겼다**.

## (13) 부분(部分) → 부문(部門)

‘부분’은 ‘전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에 비해서 ‘부문’은 한 개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위 개념으로 분류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신인문학상 시 <b>부분</b> 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부문
이트레이드증권은 9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국내 화장품 <b>부분</b> 이 선전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135만 원에서 14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문
업무 중요도에서 다소 낮은 인터넷 서비스 <b>부분</b> 에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해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문
IG전자는 인도네시아 가전 시장 10개 <b>부분</b> 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문
KB국민은행은 20일 최근 급증하는 피싱사이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서비스 <b>부분</b> 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부문
‘용의자 X의 헌신’은 온라인 서점 사이트 일본소설 <b>부분</b> 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부문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고령화 사회 변화에 맞춰 공공 **부분** 일자리 총 551건, 11만 7,000개 일자리의 연령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 (14) 유래(由來) → 유례(類例)

‘유래’는 무엇이 생긴 ‘내력’의 의미를 나타내고, ‘비슷한 예’의 뜻으로는 ‘유례’를 써야 한다. 대체로 ‘유례’를 ‘유래’로 잘못 쓰는 기사가 많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용인경찰청이 불려온 재정 과단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가 지자체 역사상 <b>유래</b> 가 없는 건축재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유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MS가 직접 윈도 기반 PC 사업에 뛰어들어 MS 역사상 <b>유래</b> 없는 일이다.	유례
그는 “비대위 체제라는 세계 정당 역사상 <b>유래</b> 가 없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당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랄까 성찰이 없다고 하면 과연 쇄신이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례
역사상 <b>유래</b>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유례
그 당시 왜 그리도 천한 뱃놈이 되려고 하는 학생이 많았는지 사상 <b>유래</b> 가 없는 경쟁 속에 같이 갔던 친구들은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 떨어졌다.	유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는 삭제돼야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은 세계에 <b>유래</b> 가 없다.	유례
“우리나라에서 <b>유래</b> 를 찾아볼 수 없는 배열이며 거의 모든 일본 신사가 따르는 일본만의 전통이다”라고 했다.	유례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이 풍속이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정착되었는지 그 **유례**를 알 길이 없다.



## (15) 한참 → 한창

‘한참’은 ‘한참 동안 기다렸다’처럼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고,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한참’을 쓰고, 무엇이 활발하고 활기참을 나타낼 때에는 ‘한창’을 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b>한참</b> 꽃다운 나이에 “출렁출렁, 울퉁불퉁”	한창
취업 박람회장에 가면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b>한참</b> 일할 나이의 50대 중장년층이 많이 눈에 띈다.	한창
<b>한참</b> 자랄 나이인데... 보육원 한끼 밥값 1400원	한창
남자 나이 마흔... <b>한참</b> 성장할 나이	한창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위치한 비치발리볼 주경기장이 마무리 공사가 <b>한참</b> 진행되고 있다.	한창
<b>한참</b> 마무리 작업 중인 승례문	한창
스물일곱이면 <b>한참</b> 거칠게 노는(?) 청년이지만 임형주에게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일단 피부부터가 소년스럽다.	한참
하지만 복부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종합선물 세트이기 때문이다. <b>한참</b> 일할 나이에 심장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혈액투석, 절단 등 여러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척도다.	한창
<b>한참</b> 일할 나이인 35~50세 과학자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를 떠났거나 과학계를 떠났다.	한창

밀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서영은 “결혼 6년 만에 드디어 사고가 나서 **한참** 입덧 중입니다”

## (16) 돌입(突入) → 시작

‘돌입’은 세찬 기세로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는 행위는 돌입한다고 할 수 없다. 갑자기 하는 행위, 줄기차고 강력하게 하는 행위에 한해서 이 말을 쓸 수 있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文·安 ‘새정치선언’ 3차 협상 <b>돌입</b> ... 신경전 예고	시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KBS가 드라마·예능프로의 출연료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라며 12일 촬영 거부 <b>돌입하겠다고</b> 9일 밝혔다. 한연노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2일 출정식과 함께 촬영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들어가겠다고 *당사자는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기자가 이를 ‘돌입하겠다’로 바꿨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에 <b>돌입하기로</b> 했다고 밝혔습니다.	을 시작하기로
신안천일염 우수성 홍보 캠퍼 <b>돌입</b>	시작
빅조 몸무게 273kg, 다이어트 <b>돌입</b> “올해 100kg 감량이 목표”	시작
윤하, 준박과의 듀엣곡 선공개로 본격적 컴백 <b>돌입</b>	시작
‘K팝스타’ 김우성, 김범수 아이비 한술밥 “데뷔 <b>돌입</b> ”	준비/시작
장근석, 복근 만들기 <b>돌입</b>	시작

밀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 발표 준비를 위해서 일부 비서와 보좌관이 담화문 문안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 (19) 사사하다(師事-)

‘사사하다’는 누구를 스승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직접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쓰는 말이다. 누구에게서 배운다는 뜻과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사사하다’는 ‘○○○를 사사하다’로 쓰는 것이 바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IG 임찬규, <b>봉중군에게 사사받은</b> 비기는?	봉중군에게서 배운
‘터치’, 박재범 안무가 <b>앤드류에 사사받은</b> 춤 공개	앤드류에게서 배운
이들은 사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뽀빠한 일상을 쪼개 홍순태(65) 친구대학 사진과 <b>교수에게 매주 1회씩 사사하고</b> 있기도 하다. 아르스고문회원인 홍 교수는 20년간 100여 개국을 살살이 훑고 있는 오지 전문 사진가다.	교수에게서 매주 1회씩 배우고
‘뱀검’ 연정훈, 데뷔 12년 만에 액션 도전 “이소룡 <b>제자에 사사했다</b> ”	제자에게서 배웠다
이미 공연은 선배 가수 <b>김장훈에게 사사받은</b> 그는 YG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 또 다른 공부에 들어갔다.	김장훈에게서 배운
존박 발레, <b>박소현 직접 사사한</b> 춤사위 공개 ‘김태원 MC 잘하네’ 존박은 머뭇했지만 <b>박소현에게 사사받은</b> 유려한 동작으로 녹화장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냈다.	박소현에게서 배운
이번 공연에서는 이일주 <b>명창에게 사사받은</b> 동초제 관소리를 들려준다.	명창에게서 배운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씨의 애국주의 공연 형식은 대부분 김장훈에게 사사한 것이라고 한다.

## (20) 유명세(有名稅)

이 낱말은 유명해진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세금에 빗댄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유명세도 ‘치르는’ 것이고 ‘타거나’ ‘떨치는’ 것이 아니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007’ 다니엘 크레이그, “① <b>유명세로</b> 삶이 풍성해졌다.” 이날 다니엘 크레이그는 “촬영하며 삶이 풍성해졌다. ② <b>유명세로</b> 인해 일상 생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미미하다.”라고 말했다.	① 유명해져 ② (맞는 말)
한편 재희는 1997년 MBC ‘산’으로 데뷔해 KBS2 ‘쾌걸춘향’을 통해 <b>유명세를 타기</b> 시작했으며 현재는 MBC 주말드라마 ‘메이퀸’에서 열연 중이다.	유명해지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다룬 뮤지컬 ‘요덕 스토리’로 <b>유명세를 탄</b> 2006년 이후에도 북한의 현실과 대한민국에 관한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해 오고 있다.	유명해진
지난 2010년 출범한 창익자문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인 서대표와 리서치 업계에서 ‘족집게’로 <b>유명세를 떨친</b> 김영익 부사장의 명성을 업고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해 투자자문 업계에 자리를 잡았다.	유명한
옆집 아저씨 같은 ‘주중 美대사 로크’ 중스타로 부상, <b>유명세 타고</b> ‘세일즈 외교’도 성과	유명해지고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산 정상의 역새평원으로도 유명세를 얻고 있다.

## (21) 같은 경우

이 말은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여 같은지 다른지 판단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 꼭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자기 생각만을 말하거나, 특정한 사물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선박 회사 <b>STX그룹 같은 경우</b> 에도 연료의 약 50% 정도가 덜 드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했다.	STX그룹도
그러나 위 <b>환자와 같은 경우</b> 신체 구조의 손상을 진단하는 영상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경우
젊은층이 많이 다니는 서울 <b>신촌로터리 같은 곳의 경우</b>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현수막은 남아 있지만 새누리당 현수막은 찢겨 나가는 일도 생기고 있다.	신촌로터리는/ 신촌로터리의 경우
“암벽화는 자기 발 사이즈보다 좀 작게 신어야 돼요. 발가락을 한곳에 딱 모아야 힘을 잘 실을 수가 있고 암벽의 미세한 부분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저 같은 경우</b> 보통 신발은 225mm에서 230mm 정도를 신는데 암벽화는 205mm를 신어요. 발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암벽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충청과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 O3 문법에 맞게 쓰기

## (1) 조사 '은/는'과 '이/가'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보조사 '은/는'을 주격으로 쓰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비교'나 '대조'의 필요성이고, 둘째는 설명의 필요성이다. 즉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대조할 목적이 있으면 보조사 '은/는'을 써서 주어를 만든다. 또 설명문(묘사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보조사 '은/는'을 써서 주어를 만든다. 그 외에는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과점 업계의 오랜 문제점을 눈감아 준다면 정부에 시장 감독 <b>기능</b> 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능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차량 운행 자체 영향으로 <b>매출은</b> 줄면서 주유소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출이
두 사람의 자연 수명이 끝나면 사멸하고 말 이 언어가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 더 빨리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 보도했다. 500m쯤 떨어져서 사는 두 <b>사람은</b>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고 대화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렇게 누적된 <b>핵연료는</b>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핵연료가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나무는** 자라서 숲을 이루면 경치가 좋아지고 공기가 맑아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하다.

## (2) 조사 ‘에’, ‘에서’, ‘에게’, ‘에게서’

처소격 조사 ‘에서’, 여격 조사 ‘에게’와 탈격 조사 ‘에게서’는 기능과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남□□, 구○○, 김△△, 정××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1일 저녁 서울 시내 한 <b>음식점에서</b> 모여… 원내 대표에 출마한 황△△, 이○○ 의원의 단일화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음식점에
연구팀은 생포한 자리돔 치어의 유전자(DNA)를 제주도 해역 자리돔과 비교 분석해 <b>국제학회에</b>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학회에서
그러나 <b>우리나라엔</b> 일본 ‘롯데기 힐스’ 처럼 성공적인 복합 개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 속으로’ <b>존에는</b> 미추왕의 군대, 분황사 우물의 용신, 소지왕의 사금갑 설화, 원효대사와 해골 이야기를 LED영상과 3면 프로젝터 영상, 편광 3D 입체영상으로 만나게 된다.	존에서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6명이 지난 25일 ‘후쿠오카대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b>일본인에게</b> ‘인천시의회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일본인에게서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경주에는 지금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 (3) 어미 ‘-ㄴ다’와 ‘-다’

동사의 서술형 종결어미는 ‘-ㄴ다(간다, 웃는다, 웃긴다, 넘는다)’이고 형용사의 서술형 종결어미는 ‘-다(기쁘다, 좋다, 넓다, 높다)’이다. 최근 일부 동사를 형용사처럼 활용하여 사용하는 잘못이 자주 나타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리무진의 치명적 단점 ‘폭소’, “웃으면 안 되지만 <b>웃기다!</b> ”	웃긴다
또 거론되는 인물 중 ○○○에 대해서는 “탈세라는 죄를 진 인물이 총선에 투입된다는 발상 자체가 <b>웃기다</b> ”라는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다.	웃긴다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하 기습뽀뽀 후 유재석과 어색한 모습 <b>웃기다</b>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웃긴다
“개그보다 <b>웃기다</b> ” 등 반응도 각양각색이었다.	웃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5교시의 위력 공감 100%”, “5교시의 위력 완전 <b>웃기다</b> ”	웃긴다
〈드라마의 제왕〉 오프닝 영상 너무 근엄하고 또 <b>웃기다</b> . 보자마자 웃음이 났 터졌음. 나폴레옹 명민좌라니! 뭔가 어울리면서도 코믹함.	웃긴다
“나는 감금 젓소”라는 시상이 저절로 떠올랐던 산후조리원 때 이야기 등 육아 생존기가 정한데 <b>웃기다</b> .	웃긴다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우스운 것을 보면서도 안 웃으려고 용쓰는 모습도 참 웃기다.

#### (4) 접미사 ‘-시키다’

접미사 ‘-시키다’를 오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주어가 상대방에게 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주어가 직접 하는 행위인데도 이 접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복지부는 또 건보료의 평균 상한선을 현행 24배 수준에서 30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개정 작업에 <b>포함시킬</b> 전망이다.	포함할
유아기에는 어른들의 권위와 질서에 따르도록 <b>교육시키다가</b> 점점 사춘기로 들어서면 학생들의 활동에 크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독립적인 행동 방식을 키우는 것이 유럽식 교육인 것 같다.	교육하다가
교통 약자 배려를 위해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교통 약자 배려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b>확대시켜야</b>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확대해야
지방의원들도 공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리 행위를 <b>금지시켜야</b>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지해야
보좌진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보좌관의 신분은 불안정한데다 교육도 제대로 못 <b>시키다</b> 보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서...	하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항상 안쓰럽고 후회스러웠죠.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아이가 대견합니다.

#### (5) 관형사 ‘첫’의 사용

‘첫’은 관형사이므로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올 수 없다.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면 ‘첫’을 부사어로 바꿔 ‘처음으로’를 사용하면 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제스민 혁명’의 진원지인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b>첫</b> 실시된 민주선거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이 압승한데다 독재자 카다피가 사살된 리비아에선 새 지도부가 연일 온건 이슬람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롯데가 창단 이후 <b>첫</b> 출전한 아시아시리즈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으로
김수창 특임검사가 10일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무실로 <b>첫 출근해</b>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첫’ 삭제
‘대한민국’ 가슴에 품고 <b>첫</b> 출전한 64년 전 그곳... 런던서 애국가 울려라	처음으로
신동규 신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선임 6일 만에 <b>첫 출근했다</b> .	첫 출근을 했다
윤승아는 10일 오후 11시 <b>첫</b>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 ‘솔드아웃’의 MC 겸 심사위원을 맡아 방송에서 상반된 스타일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진정한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보여줬다.	처음으로 (또는 삭제)
박신혜는 최근 영화 ‘12월 23일’ 촬영을 순조롭게 마치고 내년 1월 <b>첫</b> 방송하는 tvN ‘이웃집 꽃미남’에서 윤시윤과 호흡을 맞춘다.	처음으로 (또는 삭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올해 잘 익은 과일이 시장에 ①**첫** 출하되었다.
- ②**첫** 출하량 물량이 풍부하지는 않다.



## (6) 주어 없는 문장

‘주어가 없는 문장’을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아니라 아예 주어를 상정할 수 없는 문장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했는지 밝혀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주체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서술어에 포함된 명사를 주어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는 차선택을 택할 수 있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만약 한·EU FTA는 쉽게 통과시키고, 한·미 FTA만 반대할 경우 ‘반미(反美)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고려도 작용한다는 <b>분석이다</b> .	분석이 있다
간결해진 스윙으로 정확도가 높아져 홈런 수도 따라오고 있다는 <b>평가다</b> .	평가가 나오고 있다
뒷골목의 전당포보다 못한 제도권 금융의 도덕적 해이라는 <b>지적이다</b> . 한마디로 ‘금융막장’이다.	지적을 받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30%의 지분을 매입하는 가격이 4조 원이 넘는 데다 산은금융의 경우 5조~7조 원을 투입해 50%의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b>관측이다</b> .	관측이 있다
평택 기지로 2016년까지 이전이 예정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해 한강 이북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b>추진시키고 있다는 보도이다</b> .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 (7) 성분 간 호응

기사를 흔히 잘못 구성하는 이유가 성분 간의 호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미가 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장을 구성하다 보면 성분 간에 호응이 안 되는 문장을 만들게 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이 전 국장과 돈을 전달한 기업 쪽 모두 <b>합법적으로 받은</b> 자문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합법적으로 주고받은</b> *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포괄해야 하므로 ‘받은’을 뺀다.
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 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계획을 <b>변경해야 하며</b> , 이 경우 연구 단지나 대학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어차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b>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b> * ‘장점이 있지만’과 호응하는 성분이 없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이 신진대사를 통해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듯 <b>판구조운동도 지구의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다</b> .	<b>지구는 판구조운동으로 신진대사를 한다.</b> * ‘사람’과 ‘지구’를 호응시킨다.
번역 오류는 체계적인 번역전담팀 없이 촉박한 FTA 추진 일정을 맞추려던 외교부의 <b>실수가 크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b> .	<b>실수 때문이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b> * ‘번역 오류’와 ‘실수’를 호응시킴.
그러나 누군가를 올린 감동의 흔적은 문신처럼 질게 <b>새겨진 것은 아닐지라도</b> 누군가의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긴다.	<b>새겨지지는 않더라도</b> * ‘새겨진 것은 아닐지라도’와 호응시킬 만한 것이 없다.

## (8) 나열의 일치

여럿을 나열할 때에 나열하는 대상의 형태나 성질이 같아야 한다. 명사는 명사끼리, 서술어는 서술어끼리 나열해야 한다는 말이다. 서술어의 형태도 일치하도록 하고, 부사어나 관형어도 일정한 형태로 나열해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이 정부는 한마디로 <b>명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고</b>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명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이라고
서울대가 지금처럼 관치(官治)에 길들여진 대학으로 자족하면 <b>세계적으로 일류대 도약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b>	세계적인 일류대 도약도 어렵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b>284명 중 156명(56%)이었던 것이 3차 조사에서 80%로 급증했다.</b>	56%에서 80%로 급증했다 / 156(56%)명이 227명(80%)으로 급증했다.
폭염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시는 <b>시민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b>	시민 건강 위협과
“성과는 <b>외교부 몫이고</b> 책임은 다른 부서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가져가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이주 계획이 <b>확정되지 않는 데다 도시의 자족성 부족 등</b>	확정되지 않은 데다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한 점 등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금의 감소와 이자율이 하락하였다.

## 제2단계 이왕이면 이렇게

1. 시대에 맞는 말 쓰기
2. 딱 들어맞는 말 쓰기
3. 외국어 투 안 쓰기
4. 불필요한 피동 표현 안 쓰기
5. 쉬운 말 쓰기
6. 과장된 표현 안 쓰기



# 01 시대에 맞는 말 쓰기

## (1) 현해탄 → 대한해협

‘현해탄(玄海灘)’은 일본의 규슈와 쓰시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일본 지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구태여 일본의 지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대한해협’을 건너면 이미 일본으로 들어간 것과 같으므로 ‘현해탄’ 대신에 ‘대한해협’을 쓰는 것이 좋다. 일본으로 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보통이므로 ‘대한해협 건너다’는 ‘일본으로 가다’ 등으로 바꿔 써도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산청군 경호강 은어를 찾아 <b>현해탄</b> 을 건너다.	대한해협을 건너다 (일본에 가다)
조선 시대에도 외교적 목적과 교역품으로 적지 않은 고려불화가 <b>현해탄</b> 을 건넜다.	대한해협을 건넜다 (일본으로 갔다)
“재일교포 복송 저지하라” 50년 전 <b>현해탄 건너</b> ‘특공대’	대한해협 건너 (일본에 간)
멤버들의 신장이 모두 170cm를 넘는 국내 최장신 9인조 그룹 나인뮤지스가 <b>현해탄</b> 을 건넜다.	대한해협을 건넜다 (일본으로 갔다)
“반값등록금의 감동, <b>현해탄 건너오라</b> ”	대한해협 건너오라 (일본으로 오라)
세종 때 40여 차례 <b>현해탄 건너</b> ‘조선 체제안정’ 외교력 펼쳤다.	대한해협 건너 (일본으로 가)
‘갤럭시S2’, <b>현해탄</b> 건너 일본 진출	대한해협
원빈 日 연예인 반응, ‘평범남 오징어로 만드는 위력’ <b>현해탄</b> 건넜다.	대한해협 건넜다 (일본까지 갔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조선인 학생은 일본에 유학하기 위해서 현해탄을 건넜다.

## (2) 민초(民草) → 민중/국민/서민

‘민초’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나 나약하고 의지 없는 백성을 절대주의 왕권과 대비하여 일본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말이므로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거북하다. ‘민초’ 대신 ‘민중, 국민, 서민’ 같은 낱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늦여름에 시작된 두 사람의 여행은 가을이 깨어나면서 대미를 맞는다. 가족풍경을 준비하는 거리에서 울리는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마치 교향곡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b>민초들</b> 의 분주함이기도 하다.	서민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시(戰時)연합대학을 운영하고, 1960년대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게 할 만큼 <b>민초(民草)들</b> 의 교육열은 강했다.	서민/국민
힘든 현실에서도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b>민초들</b> 의 모습이 여기 겹쳐져 장엄하다.	서민/민중
그때 <b>민초들</b> 은 목숨 대신 신앙을 택했다.	민중
전쟁의 시련 겪는 <b>민초들</b> 삶, 쥐의 눈으로 보다	서민/민중
박 후보의 공휴일 타령은 일반 <b>민초들</b> 의 삶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서민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아랍의 봄’을 만든 영웅은 평범한 민초였다.

## (3) 공복(公僕) → 공무원/공직자

‘공복’은 ‘공공의 종’이라는 의미로서 전근대적인 상하 관계를 상징하고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낱말이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는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평등한 관계이며 맡은 일이 공무원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부적절해 보인다. 공무원 선거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로 바꾼 것을 감안할 때에 이 말은 이제 근대적인 낱말로 갈음해야 할 것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b>공복들</b> 의 휴일 잊은 봉사	공무원/공직자
유권자라는 ‘주인’이 국가 최고위 ① <b>‘공복(公僕)’</b> 인 대통령을 뽑을 때 위험하지 않은 정치인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② <b>공복을</b> 잘못고른 주인은 두고두고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하게 된다.	① 공직자 ② 공직자들
지자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관장하는 최일선의 대민(對民) 창구다. 공무원들이 투철한 <b>공복</b> 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리다.	공무원/공직자
‘방통위는 국민의 <b>공복</b> 인가, 통신재벌 3사의 대변인인가?’	공공기관
미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지난 5월 당내 경선에서 패했을 때 백악관은 “유권자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b>공복</b> ”이라는 특별성명을 냈다.	공직자”라는
먼저 ‘우리들의 지도자’를 축복하시어 그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했다. 다음으로 <b>공복(公僕)</b> 들의 공정한 지도력을 소망했다. 그 다음 기원 내용이 참으로 흥미로웠다. 청년들이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공무원/공직자

## O2 딱 들어맞는 말 쓰기

### (1) 와중(渦中) → 중(中)

‘와중’은 일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벌어진 사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진 사이를 나타내는 데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동안을 나타내는 데도 ‘와중’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산책하는 중에’를 ‘산책하는 와중에’처럼 쓰지 말아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호전되는 중이라면 증상의 강도가 기록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와중에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에
한국 정부는 23일 일본산 식품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경우 수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선 각국이 일본산 식료품의 수입 금지 등 통제를 강화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오염된 식품의 수입만 보류하겠다는 조치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중에
신자유주의는 갈수록 공공부문이나 사회복지 영역을 축소한다. 사적 자본, 특히 대형 자본의 돈벌이만 유리해진다. 그 와중에 주택보조금이나 교육 훈련 지원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줄었다.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는 중에
호전되는 중이라면 증상의 강도가 기록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와중에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에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주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산사태가 일어났다.

### (2) 르네상스 → 전성기/부흥기

‘르네상스’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문예를 부흥시킨다는 의미이다. 물론 유럽의 르네상스는 그리스·로마 시기의 문예를 부흥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부흥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대의 문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단순히 발전의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1990년대	전성기
김치랑 먹어도 칼칼... 호텔서 먹어도 달달... 이유 있는 르네상스	전성기
백마강 르네상스 시대를 꿈꾸며 달려온 부여군정의 현실과 관광 부여의 비전을 들어봤다.	전성기
안정환은 이동국과 1998년 프랑스월드컵 이후 K-리그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며 경쟁 의식보다 우정을 쌓았다.	전성기
문 후보는 앞서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성기
다음, 모바일 카페 르네상스를 꿈꾸다	전성기
전남 여수시, 해양 르네상스 발상지로 재탄생	문예/문화
이 과정을 거쳐 모아진 최종 콘셉트는 ‘50~60년대 마산 르네상스를 복원하자’라는 것이었다.	문예/문예전성기

## 03 외국어 투 안 쓰기

### (1) ‘에 있어서’

‘에 있어서’에 사용되는 ‘있다’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표현은 일본어 직역 투이기도 하다. 다른 어구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외교부 관계자는 “미 의회의 한-미 FTA <b>비준 여건에 있어</b> 획기적인 변화”라며 “올 상반기 중에 미 의회 비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비준 여건의
MSCI는 지수 <b>사용료 등에 있어</b>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도 협상 의지가 강해 늦어도 21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료 등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단지 정규 시간을 다 일하지 않지만 상용직으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 후생 등 <b>근로조건에 있어서</b> 달리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근로조건에서
하라 감독은 “내일 결승전이 <b>요미우리에서</b> 2012년 시즌을 마감하는 마지막 경기”라며 “전력을 다해 플레이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요미우리에게도
선거는 정치 현실과 정치 <b>변동에 있어서</b>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	변동에도
이들은 모두 박지성보다 객관적 <b>기량에 있어서</b> 만큼은 우위로 평가 받았다.	기량만큼은
이 둘이 서로의 <b>관계에 있어서</b> 조금 더 확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내보였으면 어땠을까.	관계에서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①**가격에 있어서는** 싸고, ②**품질에 있어서는** 좋다.

### (2) ‘을 통해’

‘통하다’는 어느 지점이나 시점을 지남을 기본으로 삼는 낱말이므로 매개할 수 있는 경우, 곧 거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식이다. 이 표현 대신에 조사 ‘로/으로’를 사용하거나 어미 ‘-어’를 쓰면 매끄러워진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담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면서 <b>발레파킹을 통해</b>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를 맡겼다.	발레파킹으로/ 대리주차로
논술에서는 수사법보다는 <b>이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b> 승부를 봐야 한다.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법적 <b>수단을 통해</b>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 없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수단으로
용인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시의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b>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b>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와 협의하여
로이킴이 9일 오후 11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Mnet ‘슈퍼스타K4’ 생방송 5라운에서 70년대 흥겨운 펑크곡인 사랑과 평화의 <b>‘한동안 땀했었지’를 통해</b> 각종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진정한 팔색조 매력남으로 거듭났다.	‘한동안 땀했었지’ 를 불러/ ‘한동안 땀했었지’ 로
북한은 연초 <b>신년공동사설을 통해</b> “남북 당국자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한 뒤...	신년공동사설에서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세계인은 이제 **영어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한다.

## (3) 만남을 갖다 → 만나다, 회담을 갖다 → 회담을 하다

국어에서 ‘가지다’는 생각이나 물건을 가슴이나 몸 등에 지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행위를 하는 뜻으로 ‘가지다’를 쓰는 것은 영어식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어에서 쓰지 말아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앞서 지난달 말 손보사 사장단은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과 <b>만남을 갖고</b> 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만나서
6월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MBC ‘무한도전’ 멤버인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하하, 길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연습실에서 <b>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b>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 △△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EBS본사를 방문, 직원들과 <b>오찬을 갖기에</b>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찬을 하기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22일 한·칠레 <b>정상회담을 갖고</b> 양국 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과 필리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외교장관이 참여한 <b>안보회담을 갖고</b>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보회담을 하고/ 안보회담에서
△△△ 여사가 ○○○ 대통령과 함께 7일 오전 인도네시아와 태국 <b>해외 순방을 갖기</b>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해외 순방을 하기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한일 양국은 정상 간의 회의를 수시로 갖기로 합의하였다.

## (4) ‘에서 자유롭다/로부터 자유롭다’

‘에서 자유롭다’는 영어식 표현으로서 국어로는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문구이다. 이 말은 대체로 ‘무엇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처럼 쓰이는데 이 말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무엇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을 면하기 어렵다’처럼 국어에 맞게 쓰는 것이 좋다. 굳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각종 축제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전시장 행정이란 <b>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b> .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철강 시장도 <b>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b> .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보다 훨씬 출입처나 권력기관, 정치 <b>양아치들로부터 자유로운</b> 기사를 쓰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아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아치의 영향을 벗어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선비인 이황도 <b>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b> .	논란의 대상이 된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인류의 구성원이다. 지구상의 각종 문제에서 아무도 <b>자유롭지 않다</b> . 종교의 신조차 마찬가지다.	비켜날 수 없다
도도한 시대 흐름은 미래를 가리키는데 ○○○ 리더십은 지나가 버린 △△△의 <b>잔상(殘像)에서 자유롭지 않다</b> .	잔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수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b>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b> .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얼마나 오래 시를 쓸지 두고 보자”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 (5)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가능성도 없지 않다/있다

이 표현은 대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의 문구로 쓰이는데 의미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능성’과 ‘배제하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조금 엉뚱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하지만 당내에서 부정 의혹 자체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한풀이’ 내지 ‘판지 걸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실체가 없는 단순한 의혹 제기로 끝날 <b>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 의원이 박 의장을 거론할 경우 현직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b>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 .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도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만간 공론화할 것으로 전해져 부산 총선에 막판 변수가 될 <b>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 .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검사가 3명 더 있다”라며 수사를 확대할 태세여서 대형 사건으로 번질 <b>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 .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 씨가 낸 돈의 출처 내역에 따라 △△△ 여사의 소환 <b>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 .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냉혹한 정치권의 검증 과정이 본격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b>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 .”라고 전망했다.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곧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04 불필요한 피동 표현 안 쓰기

### (1) 요구되다 → 필요하다

한국어는 능동 표현에 익숙하고 무정물을 주어로 삼는 경우가 드물다. 피동 표현이 발달한 영어권 언어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에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어떤 피동 표현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신문도 부자연스러운 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주말 사이에 도내 곳곳에서 전기 합선 등의 화재가 잇따라 <b>주의가 요구된다</b> .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한다
함수와 그래프, 표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해석 능력이 <b>요구된다</b>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식 전개 방법을 연습하면 좋다.	필요하다
초여름 날씨로 인해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건강관리에 <b>주의가 요구되고 있다</b> .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들의 빈집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려 <b>주의가 요구된다</b> .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한다
그는 이어 “가격에 대한 매력보다는 단기적인 흔들림에 <b>대한 주의가 보다 요구되는</b> 시점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주의해야 하는
원 총리가 당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b>요구되는</b> 당 대회에서 정치 체제 개혁과 관련한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필요한/절실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겨울철 때아닌 엔테로바이러스 소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 되어지다 → 되다

‘되다’는 주어가 스스로 동작하지 않고 남의 동작을 받음을 나타낸다. ‘-어지다’ 구문은 능동사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되어지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 되어 부적절하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대부분이 특급 포도밭으로 이루어진 클레멘스부쉬의 포도밭들은 철저한 유기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5~60년 이상 ① <b>되어진</b> 알테 레벤(Alte Reben) 리슬랑들이 토양에 ② <b>고착화 되어져있어</b> , 이 나무들은 전통적이고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① 된 ② 고착돼 있어
운명이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자칫 공허해지기 쉬운 개념이다. 사건의 복잡한 인과를 생략한 채 결국 그렇게 <b>되어진</b> 것이라는 허무주의적 결과론만을 전달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된
또한, 중편 방송국인 MBN 본사와 다수의 인쇄·출판 기업들, 방송·영상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도시지원시설이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b>개발되어 진다</b> .	개발된다
‘GEE’는 3장의 DVD(개당 4편의 에피소드 포함), 3장의 오디오 CD, 4편의 가이드북으로 ① <b>구성되어져</b> 있으며 네 번째 책은 어머니들을 위한 별도의 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② <b>제작되어졌다</b> .	① 구성되어 ② 제작되었다
내용이 알찬 것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알찬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고, 각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만 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b>되어졌다</b> .	되었다

## O5 쉬운 말 쓰기

## (1) 미제(未濟) → 미해결

‘미제’는 경찰의 수사 용어로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인데 일반인은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미해결’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치과 의사 모녀 살해 사건도 목격자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아직도 <b>미제</b> 로 남아 있다.	미해결
검찰과 경찰의 DNA 공조로 수년 전 발생했던 성폭행 <b>미제</b> 사건의 범인이 또 붙잡혔다.	미해결
지난 4월 20일 충남 홍성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간이 상수도 물탱크 농약 투입 사건이 ‘ <b>미제</b> 사건’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해결
○○당 △△△ 최고위원이 25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전제 조건(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 없이 차라리 ‘ <b>미제(未濟)</b> 사건’으로 남겨두고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게 더 선(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해결
바다에서 일어나는 <b>미제</b> 사건을 해결하면서 최○○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선다.	미해결
경찰과 검찰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교차 검색 강화가 <b>미제</b> 성범죄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해결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미제 사건은 수사 반장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짐이다.

## (2) 미증유(未曾有) → 일찍이 없었음/유례없음

이제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데 어려운 한자어이다. 쉽게 풀어서 쓰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미증유(未曾有)의 재난을 당한 일본을 돕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례없는
분명 무르시 후보의 당선은 이집트 역사상 미증유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일찍이 없었던
KAIST는 지난해 학생 4명과 교수 1명의 자살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겪었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습 과정에서 총장과 교수협의회가 갈등을 거듭했고 결국 현재까지 이르렀다.	유례없는
이렇게 되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국방시스템 전체에 미증유의 혼란이 초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유례없는
〈미증유의 장마 뒤 폭우〉 부랴부랴 현장으로... 뒤늦게 부산 떠는 정치권	유례없는
새해 세계경제의 화두는 '바닥 탈출'이다. 미증유(未曾有)의 금융위기와 경기 후퇴로 지난해 말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신흥시장 국가 등 전 세계 경제가 밑을 알 수 없는 컴컴한 침체의 골짜기로 들어섰다.	유례없는/전에 없는
"北 내부 이상 조짐... 미증유 사태 가능성"	유례없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증유의 경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 (3) 폄하(貶下) → 깎아내림, 폄훼(貶毀) → 헐뜯음

‘폄하’는 원래 가치보다 못하게 깎아내리는 의미이고, ‘폄훼’는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헐뜯음을 의미하지만 한자어로 이 의미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이를 구별하여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쉬운 말로 ‘깎아내리다’와 ‘헐뜯다’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좋다. 헐뜯는 행위에는 깎아내리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깎아내리는 행위에는 헐뜯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전남 지역도 의원은 “배심원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꿈수에 불과하다”라고 <b>폄하</b> 했다.	깎아내렸다
협상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 오는 성격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면서 내성적인 성격은 <b>폄하</b> 되기 시작했다.	깎아내려지기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편적 복지’를 비하하고 복지정책 수혜자를 ‘배짱이’로 <b>폄훼</b> 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 관련 책자 수백 권을 사 직원들에게 읽힌 것으로 드러났다.	헐뜯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에 대한 <b>폄훼</b> 의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헐뜯기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채널A ‘채도난마’에 출연한 황 교수의 여성에 대한 성적 <b>폄훼</b>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헐뜯기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자기의 정적은 무조건 ①**폄훼**하고 그 공적도 ②**폄하**하였다.



#### (4) 희화화하다(戲畫化-) → 웃음거리로 만들다

이 말은 ‘희화(戲畫)’로 만든다는 말인데 ‘희화’의 뜻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자주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쉽게 풀어서 ‘웃음거리로 만들다’, ‘우스개로 만들다’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이어 “서거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사람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그런 분의 죽음을 <b>희화화하다니</b>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그래서 종종 ‘뽕짝’이란 말로 그 음악적 가치가 <b>희화화되기도</b> 한다. 그런 트로트가 달라졌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부산에서 △△△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동화 속 ‘백설공주’로 <b>희화화한</b> 포스터가 대량으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스갯거리 그린
이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당 정치국이 지난달 28일 보시라이의 ‘다수 여성과 정당하지 않은 성관계’를 공개한 뒤 마오쩌둥까지 끌어들이 <b>희화화하고</b> 있는 것이다.	웃음거리로 만들고
○○당의 ‘자작극’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경찰이 치명상을 입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소리(小利)를 탐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b>희화화한</b>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웃음거리로 만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그는 주로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 (5) 영어(囹圄)의 몸 → 옥에 갇힌 몸

‘영어(囹圄)’는 ‘감옥(監獄)’과 같은 말인데 어렵고 낯선 한자어이다. ‘영어의 몸’이란 ‘감옥에 갇힌 몸’을 뜻하므로 이 뜻을 살려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전 대표는 1999년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을 설립해 회원 1000만 명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던 벤처 사업가 출신. 하지만 당시 유료화 정책의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거액의 부채가 발생, 한때 <b>영어의 몸이 되기도</b> 했다.	감옥에 갇히기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기도 했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b>영어의 몸이 되면서</b>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감옥에 갇히면서
○○○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며 정권 핵심 실세 역할을 자임했던 △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왕의 남자들’이 잇따라 <b>영어의 몸이 되는</b> 불운을 겪게 됐다.	감옥에 갇히는
굳이 종편 허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씨는 방송과 통신을 마음껏 주물렀다. 파이씨티 인허가 비리 건으로 <b>영어의 몸이 됐으나</b> 그를 둘러싼 여러 다른 불미스러운 설들은 여전히 난무하는 상황이다.	감옥에 갇혔으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현직 대통령의 형이 영어의 몸이 된 데 이어 그의 영원한 멘토라는 사람과 집사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 (6) 수수하다(收受-) → 받다, 수수하다(授受-) → 주고받다

‘수수하다’는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쓰인다. ‘수수(收受)’는 거두어 받는 행위로서 법률적으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수수(授受)’는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낱말이다. 보통의 신문 기사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할 때는 전자를 사용한 것이고, ‘공무원과 업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후자를 쓴 것이다. 같은 소리인데 한자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런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무원은 뇌물을 받는 쪽이고, 업자는 뇌물을 주는 쪽이므로 ‘받다’와 ‘주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또 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b>수수한</b> 혐의로 전 국세청 서기관 남모 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받은
이 전 국장은 2006년 6월 퇴직한 직후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b>수수한</b>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받은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b>수수하다</b>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강제로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고받다
<b>검사의 비자금 수수</b>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수창특임검사팀이 유진 그룹과 김모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사가 비자금을 받은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스카우트 담당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8,256만 원을 수수했다.

## (7) 빈축을 사다 → ‘비난을 받다/비난을 사다’ 등

이 단어는 주로 ‘빈축을 사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빈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쓰기는 어려운 한자어이다. ‘비난’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 문맥에 따라서 ‘짚그리다’나 ‘찌푸리다’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주요 경기의 경우 중계진이 다음 경기를 안내하면서 ‘잠시 후’라는 자막을 남발해 <b>빈축을 사기도</b> 했다.	비난을 사기도/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솔한 언동을 일삼는 등 술하게 구설수에 올랐던 작가 공○○이 또다시 트위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b>빈축을 사고</b> 있다.	비난을 받고
중국 당국의 탄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의 분신 사건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 관영 신화통신이 8일 티베트 20대 여인의 가정불화 분신사망 사건은 비중 있게 보도해 <b>빈축을 샀다</b> .	비난을 샀다
3급 이상 실·국장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공식 사회 관품(官品)을 뛰어넘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 <b>빈축을 사고</b> 있다.	비난을 사고/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동반위 대기업 위원 9명 중 5명이 불참해 <b>빈축을 샀다</b> .	비난을 받았다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의장 관용차 교체와 돌하르방 정문 설치 등에 20억여 원을 반영해 <b>빈축을 사고</b> 있다.	비난을 사고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헤이 주드(Hey Jude)’가 흘러나오던 중 갑자기 방송을 중단해 빈축을 샀다.

## (8) 방불케 하다 → ‘연상시키다’ 등

‘방불하다’가 ‘비슷하다’의 뜻이므로 ‘방불케 하다’는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용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방불(彷彿)’이 너무 어려운 한자여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낱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와 같다’, ‘~을 연상시키다’처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GS칼텍스, 실전 <b>방불케 하는</b> 소방 훈련 눈길	같은
거실에는 정제 모를 여러 종류의 짐이 쌓여 있고, 주방은 <b>창고를 방불케 하며</b> , 재활용 쓰레기통에는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찻잎까지 발견돼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창고를 연상시켰으며
요즘은 그야말로 <b>한여름을 방불케 하며</b>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는 완전한 여름 날씨이다.	한여름을 연상시키는 / 한여름 같은
사진 한 컷이지만 배달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자세를 보면 레이싱을 <b>방불케 하며</b> 옆으로 넘어질 듯 기울어진 모습이 마치 쇼트 트랙의 코너링을 하는 듯하다.	연상시키며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경기도 평택공장 점거 농성 진압을 위해 <b>전시를 방불케 하는</b> 경찰력과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를 연상시키는
충동은 모래사장을 <b>방불케 하는</b> ‘침대 잔디’로 유명하다.	연상시키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실전을 방불케 한 연습 경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 (9) 포퓰리즘(populism) → 인기 영합주의

원래 ‘포퓰리즘’은 엘리트 중심에 반하는 의미의 대중주의 또는 민중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이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중 영합주의’ 또는 ‘민중 영합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인이 ‘포퓰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학자나 정치인이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좇아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나 엘리트 위주보다는 대중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개념인 ‘인기 영합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이날 발표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분쟁을 야기하는 <b>통상포퓰리즘</b> 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 영합주의 통상정책
중세 없다더니 ... <b>‘복지포퓰리즘’</b> 결국 국민 세금에 떠넘기나	인기 영합 복지정책
0~2세 무상 보육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다. 소득 상위 30%의 무상 보육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소득이 많은 상위 30%는 무상 보육에서 제외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는 정치권 <b>포퓰리즘</b> 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인기 영합주의
“군 복지도 <b>포퓰리즘으로</b> 흐르다 보니 병사들에게만 집중돼 병사들을 감독하는 중대장 이하 초급 간부의 삶의 질이 형편없다. 숙소가 병사들 내무반보다 못하다.”	인기 영합주의로

## (10) 치킨게임(chicken game) → 끝장승부

‘치킨’은 미국 속어로 겁쟁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치킨게임’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로서 ‘겁쟁이를 가리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현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사안을 포기하면 겁쟁이로 낙인찍히지만 둘 다 무사하게 되고,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용감한 승리자가 되지만 둘 다 죽게 되는 게임이다. ‘겁쟁이 가리기 경기’ 또는 ‘무모한 경기’라고 쓸 수도 있겠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끝장승부’로 순화하였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한된 파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출혈 경쟁을 벌이다 보니, 결국 이동통신시장 자체가 ‘치킨게임’이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모한 승부가/ 끝장승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① ‘치킨게임’으로 D램을 주력으로 삼던 엘피다가 파산, 마이크론에 흡수 합병된 가운데 낸드플래시서도 ②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① 무모한 경기로/ 끝장승부로 ② 무모한 경기/ 끝장승부가
‘나도 손해지만 너도 손해다. 가는 데까지 가 보자!’라는 통신사들의 태도는, ‘네가 포기하라’며 외나무다리에서 마주보고 돌진하는 치킨게임과도 같다는 지적이었다. 도박판에서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되레 강하게 베팅하는 블러핑(공갈)게임과도 유사하다.	무모한 승부와도/ 끝장승부와도
낸드플래시와 D램 등 국내 주력인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른바 ‘치킨게임’의 연속이었다.	무모한 승부/ 끝장승부

## 06 과장된 표현 안 쓰기

## (1) 거듭나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가리키는데 언론에서 이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단순히 조금 달라진 경우에는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대한불교 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가 템플스테이 대표 <b>사찰로 거듭나다</b> .	사찰이 된다
5월 개막하는 ‘여수 세계 엑스포’가 첨단 전시회로 <b>거듭나다</b> .	변신한다
□□□ 대통령은 2일 “국내 수산업도 이제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b>거듭나고 있다</b> ”라고 말했다.	바뀌고
유인나는 지현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식적인 <b>연인으로 거듭났다</b> .	연인이 되었다
화려한 패션과 스타일을 넘어 대중적이지 않았던 채식과 유기견 입양, 모피 반대 등에 대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효리다. 트위터를 활발하게 하면서 소셜테이너로 <b>거듭났다</b> .	변신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독길, 새로운 관광 명소로 <b>거듭나</b>	변신
렉스턴이 신형으로 <b>거듭났다</b> . 이름도 ‘렉스턴 W’로 바꿨다.	다시 태어났다
위원회는 꼼꼼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저작권 문제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네티즌의 해결사로 <b>거듭났다</b> . 애매한 지식재산권 궁극증을 정해주는 남자, ‘지재권 애정남’이 된 셈이다.	변신했다

## (2) 사상 최초로

역사에 기대어 말할 필요가 없는 작은 사건을 그 의미를 과장하기 위하여 신문에서는 대개 '사상 최초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사상'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빼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금융감독원은 27일 조재현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선임조사역이 BIS가 주관하는 국제논문대회에서 '거시경제 불황하에서 금융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권에서는 <b>사상 최초로</b> 올해의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b>올림픽 사상 최초로</b> 한국 남녀 하키의 '동반 메달 획득' 꿈이 영어어가고 있었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 개막되는 2012 런던올림픽에 <b>사상 최초로</b> 여자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처음으로
고래 짝짓기 포착 장면이 <b>사상 최초로</b> 공개됐다.	처음으로
싸이 '강남스타일' 한국 가수 <b>사상 최초로</b> MTV 유럽 뮤직 어워드 수상	최초로
2만 6,268명이 입장하게 될 경우, 프로축구 <b>사상 최초로</b> 연고 도시 첫 600만 관중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최초로
검찰이 성폭행 등 강력 성범죄자가 아닌 성추행범에 대해서 <b>사상 최초로</b>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처음으로

## 제3단계 품격을 높이려면

1. 품위 없는 말 피하기
2. 객관성, 공정성 지키기

# 01 품위 없는 말 피하기

## (1) 저속한 표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신문 윤리 강령 제7조).”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① <b>짓지 않는</b> MB 정부의 ② <b>‘집 지키는 개’</b>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역행한 여운형과 주세죽(박헌영의 처)에 대한 훈장에는 손도 못 대면서 기왕에 준 장지연 선생의 훈장이나 도로 빼앗는 ① <b>배알 없는</b> 무개념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말것이다. ... ② <b>‘멍청한</b> 정부’ 탓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① 침묵하는 ② 지킴이/파수꾼  ① 좇대 없는 ② 어리석은
철퇴 맞은 ① <b>‘양아치</b> 정치’ 그전 뒷골목 ② <b>양아치</b> 들이나 하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면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① 저질 ② 건달
지금보다 훨씬 출입처나 권력 기관, <b>정치 양아치</b> 들로부터 자유로운 기사를 쓰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질 정치인
‘중흥무진’ 캡틴 구자철의 <b>미친</b> 존재감	대단한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은 ‘지키는 야구’의 핵심 멤버. 그가 빠진 삼성 마운드는 상상 불가다. 그야말로 <b>미친</b> 존재감이다.	대단한



## (2) 차별하는 표현

“언론인은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조 제4항).”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청주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21일 <b>처녀비행</b> 을 했다.	첫 비행
2004년 발표된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NT-1)는 체세포핵이식이 아니라 우연한 <b>처녀생식</b> 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졌다. 처녀생식은 핵을 제거하지 않은 난자가 충격을 받아 정자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해 수정란을 만드는 것이다.	단성생식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삼성전자와 최근 계약을 맺은 크리스 벅글이 최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다녀가 그의 <b>‘처녀작’</b> 출시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했다.	첫 작품
지난해 GDP 3.6% 성장… 수출에만 의존한 <b>‘절름발이’</b> 성장	불균형
<b>절름발이</b> 보안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완전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융합시대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뒷받침이 없다면 <b>절름발이</b> 경쟁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한

## (3) 과격한 표현

우리 사회에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가상 공간에서 특히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인데, 언론이 어느 정도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신문에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언어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최근 좋은 성적을 내며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던 일본펀드가 동 일본대지진의 <b>직격탄을 맞아</b>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직접 영향을 받아
장난기가 발동한 가은이 탁재훈에게 “아빠”라고 부르자, 탁재훈은 “들어가서 공부해, 네 엄마하고 이야기하자”라며 깨알 같은 개그로 스튜디오를 <b>초토화시켰다</b> .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 △△△ 의리 지키고 <b>국민 등에 칼 꽂다</b> ” △△△-□□□ 제명 표결 기원으로 무산시킨 ○○○에 네티즌 비난 쇄도	국민을 배반하다
한국의 젊은 패션, 뉴욕 <b>강타</b>	놀라게
빙상 국가대표 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b>충격</b>	(삭제)
예뻐진다는 양악 수술, 반값된 이유가 … <b>‘경악’</b>	(삭제) * 손님이 줄어서
여야 없이 ‘5·16 발언’ <b>용단폭격</b> … ○○○ 고립무원?	맹비난



#### (4) 외모에 치우치는 표현

불필요하게 개인의 얼굴이나 몸매를 언급하거나, 과장되게 말하면 기사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정확하고 명료한 낱말, 상황에 가장 알맞은 낱말을 골라서 쓰는 것이 신문 언어를 바르게 쓰는 방법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개그맨 김병만(37)의 예비 신부가 40대 <b>초반 미모의 여교사</b> 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초반의 교사 * 굳이 여교사임을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정준하는 10세 연하의 <b>미모의 일반인과</b> 오는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여성과
서울대 출신 <b>얼짱女</b> , '상위 1%파티' 갔다 그만	여성
동해로 피서 간 20대 <b>얼짱</b> 女대생, 현금 바닥나자	(삭제)
노원에 뜬 김태희 포착 ' <b>자체발광 여신미모</b> '	(삭제)
설운도는 30일 방송된 '스타 인생극장'에 출연, <b>미모의</b> 아내 이수진 씨와의 결혼 스토리를 털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	(삭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래벚길 인근의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서울 강남에서 실종 신고된 <b>미모의</b> 모델 지방생 A(19)씨로 확인됐다.	(삭제)
리바운드 잘하는 <b>미녀</b> 선수 신정자는 해마다 득점과 도움 능력을 키웠고 지난해엔 정규리그 MVP를 받았다.	(삭제)

## O2 객관성, 공정성 지키기

#### (1) 논리적으로

문장은 논리적이고 앞뒤 모순이 없어야 한다. 억지와 논리 비약이 없으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어 독자가 손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글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신문 기사 사례	문제점
신정아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젊은 20~30대들이 <b>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정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b>	* 20~30대 보복용 일기 쓰는 법을 학습하고 있다고 한 것은 매우 엉뚱한 결론이다.
이제 <b>8월</b> 이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b>최고의 달</b> 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최적이라 할 수 있다. <b>A자형 인재가 만들어지는 시기다.</b>	* 8월을 평가한 내용에 논리 비약이 있다. 최고의 달, 최적기, A자형 인재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8월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b>이름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b> 공연히 굶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지금의 이념 논쟁이 실속 없이 겹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초과이익공유제 논의가 겹도는 것을 이름 때문으로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그래도 젊은 부부들에게 '하기 백일'에 대한 감회는 여전하다. ' <b>지난 백일</b> ' 못지않게 ' <b>남은 백일</b> '도 <b>각별하다</b> . 우리나라에서 대입수능일은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국가적 행사다.	* '지난 백일'과 '남은 백일'에 대한 설명이 없고 왜 각별한지 주장의 근거가 없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공정 거래위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항간에선 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b>보신주의 때문에</b> 공정위에도 전관예우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앞말이 뒤에 오는 결론의 근거가 되지 못하여 의미가 불분명하다.

## (2) 사실에 맞게

“보도 기사(해설 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3조 보도 준칙).”

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적는 것은 신문의 공공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기사문에서 사실 관계를 잘못 알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신문 기사 사례	문제점
4대강 보(泐)에 모인 물 4억m <sup>3</sup> , ① <b>전국 가뭄 농지에</b> 팔팔팔.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자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泐)에서 4억m <sup>3</sup> 의 물을 확보해 ② <b>전국에</b>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 <b>새로 물이 공급된 지역은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낙동강 주변 농지가 대부분(105km<sup>2</sup>)이다.</b>	① (‘전국’ 삭제) 가뭄 농지에 ② 낙동강 유역 가뭄 농지에 * 일부 낙동강 주변 농지에 물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이르면 40년 뒤면 국민연금도 ① <b>바닥나게 된다.</b> 이 때 쏘이면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GDP의 46%를 복지에 ② <b>쏟아부어야 한다.</b>	* 예측일 뿐인데 마치 확정적인 것 처럼 적었다. ‘전망된다’나 ‘예상된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3) 지나치지 않게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 편집 지침).”

과장하는 표현은 사건의 실체나 본질을 흐리부지 덮어 버리거나 불확실하게 전달하는 역기능을 하기 쉽다. 신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임무이고 그 사실의 의미는 별도로 해설하거나 논술하는 방법으로 독자에게 전하는 것이 정도이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한국 여고생 괴물에 <b>발각 뒤집힌 일본</b>	깜짝 놀란 일본 (골프계)
인피니트, 10월 日 아레나투어 개최 ... <b>일본도 접수!</b>	일본에서도 인기
‘ <b>천 년에 한 번 볼 수 있다</b> ’ ... 흰까마귀 강원도 출현	희귀한/보기 힘든
지자체 영터리 사업들이 <b>나라를</b> 거덜 낸다	지자체를
<b>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b> 나온 돈으로 술 먹고, 밥 먹고, 수억 원의 뇌물도 받고 떡값도 받았다.	서민들에게서
이들은 이날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는 ‘천일 동안’을 비롯해 ‘그대가 그대를’, ‘딩크슛’ 등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는 <b>메가톤급</b> 히트곡을 선사한다.	대표적인

#### (4) 인용, 출처 제시를 정확하게

‘법조계’, ‘야권’, ‘○○당’처럼 자연인이 특정되지 않고 그 자연인이 속한 집단을 내세워 그 집단의 의견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의롭지도 않은 보도 태도이다. 결국 기자가 원하는 말을 해 주는 한 사람의 의견을 그 집단의 전체 의견처럼 보이게 하여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그의 말이라고 하여 인용하는 것도 신문 기사로서는 부적절하다. 인용을 할 때에는 그것이 누가 한 말인지 독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문제점
야권에서는 검찰이 문 고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도 정치적으로는 <b>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시각에선</b> 이번 사건이 문 고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호재(好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야권의 의견과 새누리당 시각을 누가 대변해 주었는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힐링캠프 출연해 <b>거짓말했다</b> ” △△△ 캠프의 한 의원은 “정치공학이 너무 심하다. 비겁하고 위선적”이라며 “진심·상식 등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치 아마추어의 등장”이라고 혹평했다. <b>한 캠프 관계자는</b> “안 원장의 발언 중 <b>거짓말이 있는데</b> 앞으로 낱말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 △△△ 캠프의 한 의원, 한 캠프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축은행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b>법조계의 시각</b> 이다.	*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법조계의 시각을 왜곡할 수 있다.

#### (5) 가치를 왜곡하는 단어 피하기

특정 단어를 특별한 가치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도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세금이 마치 폭탄처럼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당연히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떡값 검사’라고 하면 명절에 떡값을 받은 검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뇌물의 액수와 문제점을 축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신문 기사 사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의 내 아이, 이대로라면 ... 직장 다닐 때, <b>세금 폭탄</b>이 재앙 수준?</li> <li>• 판매 금지 미술품에 333억 원 <b>세금 폭탄</b></li> <li>• 해외 금융 계좌도 신고해야 <b>세금 폭탄</b> 안 맞는다</li> </ul>	* 세금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면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떡값</b> 검사’ 명단 공개 ○○○, 항소심 승소</li> <li>• 김 씨는 명절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b>떡값</b>’을 전달하고 세무조사 때마다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li> <li>• 공직자, 100만 원 이상 ‘<b>떡값</b>’ 무조건 처벌</li> <li>• 檢, 공무원에 ‘<b>떡값</b>’ 전달 혐의 건설사 간부 영장</li> <li>• 정 씨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b>떡값</b>’을 돌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li> </ul>	* 뇌물을 하찮은 것으로 축소하는 면이 있다.

## (6) 미끼 제목 안 달기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 제1항 표제의 원칙).”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기사의 얼굴이다. 그래서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는 위와 같이 제목(표제)을 적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사 제목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고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문 기사 사례	문제점
서울대 출신 얼짱女, ‘상위 1% 파티’ 갔다 <b>그만</b>	* ‘그만’을 넣음으로써 무슨 대단한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미끼를 던졌다. 기사 내용은 파티에 갔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 VS 손○○ 총선 지지율 <b>의외로...</b>	* ‘의외로’라고 함으로써 지지율이 생각보다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었다. 그러나 실제 기사는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대통령 교회 폭행 사건’ 진실 총 정리	* 대통령이 실제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사화한 것이라도 교회 이름보다 대통령을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
<b>안○○ · 김△△</b> 강연 한 번 하고 받는 돈이	* 안○○와 김△△이 강연하고 받는 돈이 무척 많은 것처럼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 내용에는 아무 설명도 없다.

## [찾아보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가능성도 없지 않다/있다	62	만남을 갖다 → 만나다	60
가치를 왜곡하는 단어 피하기	87	매니어 → 마니아	20
갖어 → 가져	15	미끼 제목 안 달기	88
갖으면 → 가지면	15	미제(未濟) → 미해결	65
갖은 → 가진	15	미증유(未曾有) → 일찍이 없었음/유례없음	66
갈애 → 갈아	11	민초 → 민중/인민/서민	54
같은 경우	42	바램 → 바람	11
거듭나다	75	반증 → 증거/증명	26
결제/결재	30	방불케 하다 → 연상시키다	72
곤혹/곤욕	32	부분 → 부문	34
공복(公僕) → 공무원/공직자	55	빈축을 사다 → 비난을 받다/사다	71
과격할 표현	81	뿌리채 → 뿌리째	12
그밖에도 → 그 밖에도	21	뿌띠 → 프티	20
—다/—다	45	사사하다	40
나열의 일치	50	사상 최초로	76
너 밖에 → 너밖에	21	사실에 맞게	84
논리적으로	83	성분 간 호응	49
담구다 → 담그다	13	수수하다(收受-) → 받다	70
당기다/땡기다/땅기다	33	수수하다(授受-) → 주고받다	70
돌입 → 시작	37	수 밖에 → 수밖에	21
되어지다 → 되다	64	수퍼 → 슈퍼	20
들리다 → 들르다	14	—시키다	46
등극 → 오름/올라	23	애환	39
덜어 → 디더	16	에/에게	44
덜은 → 디딘	16	에/에게서	44
르네상스 → 전성기/부흥기	57	에/에서	44

에서 자유롭다/로부터 자유롭다	61	치루다 → 치르다	13
에 있어서	58	치킨게임 → 끝장승부	74
여부	38	컨셉트 → 콘셉트	20
연출 → 보임/드러냄/일어남/만듦	24	컨텐츠 → 콘텐츠	20
영어(영어)의 몸 → 옥에 갇힌 몸	69	콘텐츠 → 콘텐츠	20
외중 → 중	56	통채 → 통째	12
외모에 치우치는 표현	82	틀리다 → 다르다/그르다	28
요구되다 → 필요하다	63	파장 → 파문	25
유래 → 유례	35	펼쳐(展下) → 깎아내림	67
유명세	41	펼쳐(展下) → 헐뜯음	67
'은/는' 과 '이/가'	43	포퓰리즘 → 인기 영합주의	73
을 통해	59	한글 → (한)국어/우리말	22
이밖에도 → 이 밖에도	21	한참 → 한창	36
인용, 출처 제시 정확하게	86	현해탄 → 대한해협	53
임산부 → 임신부	29	홀홀단신 → 혈혈단신	18
잠구다 → 잠그다	13	환골탈퇴 → 환골탈태	19
저속한 표현	79	회담을 갖다 → 회담을 하다	60
절대절명 → 절체절명	17	희화화하다(戲畫化) → 웃음거리로 만들다	68
접수 → 제출	27		
주어 없는 문장	48		
지나치지 않게	85		
지놈 → 게놈	20		
차별하는 표현	80		
첫	47		
첫 번째 → 첫째	31		

기획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집필 남영신, 박종분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책임 김형배 (국립국어원)

발 행 2013년 5월 20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누리집 <http://korean.go.kr> (<http://국어원.한국>)  
 전 화 02-2669-9775